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출된 공간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김 한 규

연출된 공간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김 한 규

인 준 서

김한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 문 개 요

이제는 많은 예술가들의 전시의 공간이 많이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진 것이다. 장소가 자신의 작품에 어우러지면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와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는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효율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예술가들은 기존의 화이트 큐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더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더불어 이제는 관객들이 작품들을 감상하며 그 작품들 사이에서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공동체 참여미술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작품을 보다 적극적으로면서 능동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장소를 특징적으로 한 미술 또한 작품과 관객, 그리고 작가가 어떠한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유대감 또는 유사한 기억과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된다.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다양한 기억들과 경험들을 상기시켜 노스텔지아를 일으키며 이를 토대로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예술가들이 작품을 작업하면서 유념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일상 속에서 어릴 적 우리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기억들과 꿈꿔왔던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처럼 한때 삶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억과 추억들을 어떠한 특정 공간에서 예술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함께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도 어쩌면 이런 방식의 예술작품 감상의 기회는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시도이자 예술이라는 분야를 조금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료하고 정신없이 바쁜 일상속에서 분명 기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 지고 있는 전시콘텐츠 중 '공간'을 바탕으로

로 한 공간제작설치가 입혀진 본인 작품인 ‘백색교실’(‘white school’)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관객들의 여러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관객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데에 목적을 둔다. 본론에서는 공간전시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작품의 배경이 된 본인의 유년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전시콘텐츠를 '공간'으로 선택하여 관객참여형 전시의 사례인 본인의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고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관객과 장소의 상호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무리 결론에서는 ‘교실’이라는 본인이 설정한 기본 전시 공간에서 작품과 관객 사이에서 발생한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안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1. 작품 형성 배경	
1) 사회적 배경	4
2) 유년기의 기억	5
2. 작품 표현 방법	
1) 화이트 큐브	14
2) 작품 공간 스토리텔링	15
3) 관객과 작품의 관계 형성	16
4) 작품발표후의 결과(체험내용 중심)	18
3. 작품 분석	21
III. 결론	39
참고문헌	40
ABSTRACT	42

작 품 사 진 목 차

【작품 1】 교실 책상들의 배치 구조 1	21
【작품 1-1】 교실 책상들의 배치 구조 2	21
【작품 2】 풍금의 사용 1 / 2019	23
【작품 2-1】 풍금의 사용 2 / 2019	23
【사진 3】 도시락의 사용 1 / 2019	25
【사진 3-1】 도시락의 사용 2 / 2019	25
【사진 4】 공간전시의 퍼포먼스 1 / 2019	27
【사진 4-1】 공간전시의 퍼포먼스 2 / 2019	27
【작품 5】 창문 너머 보이는 풍경들 / 2019	30
【작품 6】 School 평면드로잉 1 / 2019	32
【작품 6-1】 School 평면드로잉 2 / 2019	32
【작품 6-2】 School 평면드로잉 3 / 2019	32
【작품 7】 책상과 벽의 낙서 / 2019	35
【작품 8】 교실의 바닥표현 / 2019	37

1. 서론

현대미술은 예술을 삶과 동떨어진 부분에서 미적 순수성과 형식만을 중요시한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 sake)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포스트모던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의 양상이나 실태들이 변하고 이들은 기존의 모더니즘이 가진 예술에 영향을 끼쳐 미술계가 우리들의 삶과 조금 더 융화된 모습을 나타내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미술 제도로 인해 우리 삶과 미술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단절되었던 인간의 삶과 미술이 원활하게 상호소통하고 통합된 모습을 나타내는 ‘공공미술’(Public Art)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되었다. 공공미술이란, ‘공공 장소에 설치된 미술’을 일컬으며 야외 조각에서부터 벽화, 대지미술, 그리고 도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¹⁾ 더 나아가 공공미술의 또 다른 대표적 특징은 기존의 미술관, 즉 ‘화이트 큐브’를 넘어 도시의 다양한 공공의 공간에서 예술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모더니즘을 지나 작품을 전시하게 될 ‘장소’와 ‘작품과 장소의 맥락’도 함께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작품을 전시할 환경에 관심을 가지며 공공미술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소 특정적 미술’(Site Specific Art)이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다.²⁾

미니멀리스트들이 장소 특정적 미술을 진행하면서, 외부 환경 요소들을 작품에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시도했다. 따라서 작품이 전시되는 장소가 외부적 환경요소와 더불어 관객들의 경험까지 어우를 수 있는 의미

1) The artist magazine (2019), ‘만인을 위한 아름답고 착한 미술, 공공미술 & 장소 특정적 미술’.
2) 위키 백과 (2018), ‘장소 특정적 미술’

있고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기존에 평면그림, 영상물, 조형물 등의 콘텐츠들을 위주로 기획되던 전시에서는 전시공간이 그저 작품을 진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을 탈피하려고 한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적 미술에서 ‘장소’는 단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유동적인 공간으로 확장된다.³⁾ 즉, 사회학에서 대부분 다루어지는 문제들 또는 이슈들이 미술계에까지 미쳐 기존에 장소가 지니고 있던 의미가 변한 것이다. 이런 소위 ‘공간 혁신’은 미술영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연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 용산구 원효초등학교에서는 타 학교의 일반적인 교실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더욱 활발하게 뛰면서 즐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에 볼 수 있었던 교실과는 다르게 원효초등학교의 교실은 교실 2개를 하나의 큰 공간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다. 책상도 우리가 알고 있는 획일화된 형태의 책상이 아닌 교실 중앙에 ‘U’자를 그리며 교실의 선생님이 계신 중앙(가운데)으로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배치하였다. 이런 공간의 혁신으로 인해 원효초등학교의 모든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⁴⁾

위와 같이 미술 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여, 보다 우리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뜻깊은 새로운 장소로 재탄생 시키는 여러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런 미술계의 새롭고 다양한 움직임에 따라 관객들이 ‘전시공간’ 자체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3) 권미원 (2013), ‘장소 특징적 미술’, 현실문화

4) 문화일보 (2019, 11), ‘<공간혁신, 학교가 변하면 미래가 변한다> 교실서 실컷 뒹굴고 땀따먹기도 “토요일에도 등교해 놀고 싶어요”’.

선보인 본인 작품인 ‘백색교실’(‘white school’)의 분석과 관찰을 통해 ‘공간’을 위주로 미적체험을 시도하고 있는 전시콘텐츠에 관객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전시공간을 작품이 진열되는 물리적인 개념에서 나아가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예술작품으로 생각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관객의 작품에 대한 시각적 해석을 넘어 오감을 이용해 전시 그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공간체험’이 확장됨에 따라 미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콘텐츠의 새로운 활용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필요성을 살핀다. 동시에 또한 ‘전시공간’은 회화, 조각, 영상 등을 나타내기 위한 화이트 큐브 (White Cube)만을 의미했던 개념과 더불어 함께 관객과 예술작품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다시 말해, 본인의 작품에서 화이트 큐브는 ‘교실’이 되고, 그 작품 공간에서 관객들과 어떤 관계들이 유연하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고자 한다. 즉 이는 공간이 관객과 작가 사이에 주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배경

1) 사회적 배경

예술을 통해 감성적 교류와 지적 호기심에 대한 대중들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관객들이 방문하는 전시공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그저 작품들을 진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만 인식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관객과 실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기능까지 더해진 것이다. 예술작품의 주제(‘교실’)와 전시공간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가 전시 기획의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오브제작품 또는 평면작품이 아닌 공간 자체를 전시의 콘텐츠로 이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이것에 중점을 두어 관객과 교실(공간전시)과의 관계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여러 수많은 장소들 중 ‘교실’을 전시공간으로 선택한 데에는 본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 사람마다 다양한 유년시절의 기억과 추억을 간직하고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시절 우리가 대부분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바로 ‘교실’일 것이다.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의 추억은 우리 모든 이들의 향수(nostalgia)를 자극하기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됐기 때문이다. 또한, 기성세대뿐만 아닌 요즘 세대에게도 ‘교실’이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기억속의 ‘교실’만은 그 본연의 의미를 계속해서 간직해왔으며, 그것들 안에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 하나의 공통분모가 될 것이다.

2) 유년기의 기억

어느 누구나 어린 시절의 동심과 지난 날들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간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유년시절이나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향수(nostalgia)가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게 되고, 시대와 관계없이 누구나 화려했던 그들 스스로의 과거를 떠올리며 추억하는 인간의 욕구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욕망은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과거의 소중한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상기시키고 나아가 바쁜 생활로 인해 희미해진 자아 정체성까지도 되돌아 보게 만들었다.

노스탤지어⁵⁾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보다는 아름답고 행복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게 한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지면, 과거에 동일한 일들을 경험한 세대 간에 정서적 관여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서로 하나가 되면, 다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기성세대는 과거의 날들을 행복하게 떠올릴 수 있는 표상체계에 대하여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젊은 세대들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것에 대한 새로운 감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 현대인들은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어린 시절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좋았던 기억들을 그들의 기억 속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가다 우연한 기회에 자연스럽게 떠올라 혼자 미소를 지으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와 지난날의 향수를 갖게 된다. 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 무형적인 것이든 외형의 어떠한 것이든 간에, 단지 지나간 시절을 회상하는 것만으로 인간의 감성에 내재된 욕망기제에 자극을 주어 ‘그 시절에는 이랬었지’, ‘나도 예전에는’이라는 기억들을 상기시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게 되

5) Boym, Svetlana. (2001). The Future of Nostalgia. Basic Books

Cross, Gary S. (2015). Consumed nostalgia : memory in the age of fast capitalism.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는 것이다.

다른 이의 향수에 대한 욕구를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마치 나의 욕망인 것처럼 동일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신선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복고라는 개념에서 가상적 주체는 지난 과거를 현실에서 재현하는 과정에서 ‘나’ 또는 ‘나만의’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가진 복고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모든 현대인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며, 이는 각양각색 문화의 혼조성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점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로 인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White school’이라는 전시에 등장하는 ‘교실’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풀어본다. 사람들에게 유년기의 기억들은 어떻게 다가올까? 자아가 형성되기 전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경험해보는 시절로 인생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보냈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교에 남아서 친구들과 놀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교실이라는 공간이 나에게 더 잘 와닿는 이유는 나의 꿈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처음으로 배웠고, 그림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종이에 무언가를 그려냈고 동시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그때 미술과 사람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고민했다. 그 결과 무대미술을 하는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이 선명해지고 난 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혼자 그림연습을 했던 시간이 떠오른다. 이 시기에 분명 진로 때문에 부모님과 마찰을 빚었던 것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나의 절실함과 내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 설득했던 나의 모습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애처롭게 여겨지기도 했다.

나에게 교실이라는 공간은 ‘인생의 시작’이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풋풋하고 열정적인 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지금의 나를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라면 반대로 부정적인 또 다른 의미도 존재한다. 만약 유년시절 다른 학교, 다른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친구들과 다른 경험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늘 그렇듯, ‘지금의 길’이 아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지난 일,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 한다. 아무리 후회해봤자 이미 지나간 일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그냥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것은 그저 어린아이의 모습일 뿐, 아무 도움도, 소용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차라리 후회하며 한탄하는 것보다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의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실이라는 공간은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유년시절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뜻깊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나의 첫 전시의 주제 공간으로 ‘교실’을 선정하게 되었다. ‘교실’이라는 단어는 참 여러 감정과 다양한 기억들을 연상시킨다. 누군가에게는 아련하고 씩씩할 수 있고, 또 다른이에게는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감정과 기억들이 무엇이든지 ‘white school’을 관람하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그들의 추억과 기억들로 공간을 가득 채워보기를 기대한다.

2. 작품 표현 방법

ㄱ. 전시공간의 개념과 역할

전시회와 공공미술관에서 평범한 일반인이 예술품을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은 16세기 초에 피렌체의 메디치가 자신의 일부 소장품 대중에서 공개하기 시작한 그때 이후부터였다.⁶⁾ 유럽 각국에서는 19세기 중반에서 말까지 관람객을 작품의 일부분으로 활용하여 전시장에서 극적인 장면묘사를 했고, 구성과 조명을 사용해 흥미로운 전시기술과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칭적 평면형식의 구성 등을 고려한 전시는 현재의 전시콘텐츠와 전시 방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⁷⁾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대중들이 예술작품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고 미술관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미술관은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해왔다.

기존의 전시공간은 그저 작가에게 그들의 작품을 펼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정도에 그쳤다.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는 작품을 보다 편하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일 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전시공간은 다른 공간과는 달리 작가의도에 따라 작품들을 따라 이동하면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 이 전시공간에서의 이동은 관람객들의 전시에 대한 의지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한다. 따라서 많은 관객들의 참여도와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시는 단순히 진열되어 있는 예술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의도와 목적이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관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에 따

6) Josep Montaner & Jorsep Oliveras (1986), *The Museum of the Last Generation*, Academy Editions.

7) 데이비드 딘 전승보 옮김 (1998), “미술관 전시 이론에서 실천까지”, 서울, 학교재.

8) Michael Belcher (1991), *Exhibitions in Museums*,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른 감각적 활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결국 전시 공간은 관람객들의 단순 관람이라는 일차원적인 의미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관람객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론적 측면에서 바라본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행태가 구축된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문화적 메신저의 역할과 더불어 ‘인간-공간’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⁹⁾ 관객은 전시의 일부분이자 동시에 전시 그 자체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ㄴ. 전시의 새로운 변화

현대미술에서 새롭게 많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시공간에 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전시공간을 새롭게 채워고 표현해나가는 현장제작 설치 작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어떤 공간을 토대로 설치되는 공간 전시는 현장성과 같이 유연성을 함께 수반하고 공간으로부터 파생된 아이디어들이 작가에게 영감을 주게되고, 그 공간은 작품으로 구현된다.

‘장소(place)’라는 개념은 현존하는 장소를 나타낼 때 쓰이며, 특정 장소에 문화적 내용과 가치들이 더해진다면 ‘공간(space)’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즉 다시말해 관객과 공간의 거리를 좁히고, 다양한 여러 의미가 연출자(작가)에 의해 재창조 또는 재해석되어 새로운 확장의 공간으로 변하는 것이다. 관객들의 참여로 인해 전시공간은 개인의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사적인 공간으로도 의미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기존 전시 방식으로는 관객과의 소통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없음을 깨달은 몇몇의 젊고 새로운 예술가들은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 화이트 큐브의 한계를 깨보려 했던 시도의 한 예로 독일의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¹⁰⁾를 꼽을 수 있다.

9) Stephen. S, (Ed) (1986), Building the New Museum, The Architectural League of New York.

10)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 : 독일의 작은 도시인 뮌스터(Münster)에서 10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세

이 프로젝트는 1977년부터 시작하여 시민들과 미술 사이에 거리감과 거부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고, 이는 관객이 현대 예술을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그리고 예술을 새롭게 느끼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일반인들과 전 세계 예술계 종사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행사가 되었다. 조금 더 친숙해진 예술 작품들을 계기로 뮌스터에서 관객들은 작품에 직접 참여하여 미술과 미술이 아닌것에 대해 추리해 보는 색다르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시장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간이 사용된 신선하고도 파격적인 시도가 나타났다. 1991년 <The Kitchen Show>에서 스위스 출신인 큐레이터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 1968 -)¹¹⁾는 정형화된 공간과 그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자신의 부엌에 예술작품들을 진열하였고, 전시공간에서 관객들이 음식을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을 활용하는 전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울리히는 그 후 1993년 <Airline Project>라는 제목으로 비행기 승객들에게 예술가들이 만든 퍼즐 조각을 나눠주고 이를 통해 white cube가 지닌 한계 극복과 동시에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경험으로 관객들과 함께 작품을 완성하기도 했다. 결국 공간-관객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특정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앞으로의 현대미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본인의 작품은 전시콘텐츠를 상대적으로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시도로 공간이라는 조건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조건(전시공간)과 작품의 결합은 공간전시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관객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발견했다.

작품 표현 방법 서술을 시작하기 앞서 장소 특정성 예술과 장소 특성의

계 최고의 공공미술 행사로, 1977년부터 시작되어 10년 주기로 도시 전역에서 펼쳐는 조각프로젝트이다. 2017년에는 6월 10일에서 10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11) Hans Ulrich Obrist (2014), 「The Kitchen Show」, the PARIS REVIEW, December 18.

개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장소 특정성(site-specificity)¹²⁾은 단지 미술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술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미술사적 구분을 넘어 장소 특정적 미술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 특정적 미술’에서 ‘장소’란 그 자체만으로 다른 어떠한 요소들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특정한 장소·공간과 작품이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미술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작품을 전시하거나 설치할 때 전시 공간 뿐 아니라 그 주변의 특징이나 상태 등 까지 고려하여 작품을 포함한 장소 그 자체로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까지가 작가의 작품 영역인 것이다. 이런 장소 특정성 미술은 주로 전시공간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대지 미술이나 주어진 특정 장소 자체를 사용하는 설치미술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으며, “장소와 결합하는 예술”이라는 의미로 인해 다양하고 새로운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소 특정성 미술은 작품과 더불어 그것이 설치 또는 전시되는 장소 이 두 가지 모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의미해석은 그 어느 때 보다 빠른 속도로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나 개념적인 의미와 함께 지역과 관련된 의미로까지 다채롭게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오늘날 ‘비판적’ 미술 실천을 상품화하려는 현상이 기존의 미술 제도에 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많은 비평가, 미술가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 나아가 작품의 주제로 사회문제를 다루고 관객들이 작품의 구상과 설치 및 제작까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현대의 장소 지향적 미술의 형태는 기존보다 강력한 영향과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미술이 우리의 사회 또는 정치적 구조에까지 파고들게 만든 수단이라 말 할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소를 억압된 소수민족의 역사나

12) 장소 특정성 예술, <https://analbreaker.tistory.com/15> [analbreaker]

정치적 대의, 혹은 사회적인 소외계층과 같이 장소(place) 이상의 것으로 상상해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는 미술과 미술가들의 공공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적 도약인 것이다.¹³⁾

모든 종류의 미술 작업에서 장소성을 중요시할 경우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현장 미술(in site work)이라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 장소를 중시하는 설치 미술은 단순히 여러 물질적, 감각적 요소들을 이용해 고루한 의미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도 아니고 재치 있게 표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현재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상황적 의미와 관련된다. 따라서 장소 특정적 미술은 원래 '작품이 놓여진 바로 그 장소를 떠나면 파괴되어야 한다'(리처드 세라)¹⁴⁾는 개념에 기초를 두었지만, 이제는 장소에 따라 예술작품이 그 장소로 조절 또는 이동될 수 있다는 의미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무대 디자인과 연극 공간에서도 “변형된 공간”과 “발견된 공간”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¹⁵⁾ 변형된 공간이란, 다양한 매체들이 재구성되고 유기적으로 변형되면서 창조된 공간들을 완성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변형은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기획과 제작 및 리허설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 된다(Richard Schechne, 1994). 한편, 쉘크너는 발견된 공간이라는 것은 변형할 수 없는 공간을 뜻하며, 이것은 곧 변형된 공간의 반대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견된 공간의 예로는 야외 공간과 공공건물을 들 수 있다. 발견된 공간에서의 연극이나 전시는 그 공간 자체가 가지

13) 권미원 (2013), '장소 특정적 미술', 현실문화

14) 전해숙 (2000), 『리처드 세라의 공공조각과 장소-특수성』, 『현대미술사연구』, 제10집.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1939~), 미국의 미니멀리즘 조각가. 주요 작품에는 「띠 Belts」(1966~1967), 「기울어진 호 Tilted Arc」(1981), 「지주 Fulcrum」(1987), 「교차 II Intersection II」(1992~1993), 「회전하는 타원 IV Torqued Ellipse IV」(1998), 「깨어나다 Wake」(2004) 등이 있다. <http://www.poemspace.net>

15) RichardSchechner (1994), “Re-Introducing Environmental Theater”Environmental Theater, New York: Applause, pp.x-xxxii. 쉘크너는 환경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로 환경은 공간 안에서 공간과 함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어진 공간을 수용하는 것이다. 전자는 공간을 변형시킴으로서 환경을 만들어내는 반면, 후자는 공간과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있는 환경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이에 걸맞게 창의적으로 대처해나가는 형식을 의미한다. 장소 특정적 미술과 마찬가지로, 장소 특정적 연극에서의 '장소'는 공간에 관한 면밀한 탐구와 분석을 거쳐서 그 자체만으로도 창작에 관여하는 핵심적이면서 구체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견된 공간에 변형을 주어 기존의 무대와 객석 간의 관계에서 벗어나 좀 더 유동적으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실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개념들을 토대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킬만한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았다. 모든 사람이 문화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며, 그 관계 속에 지치고 익숙해져 나의 본연의 꿈이 희미해지고 있다. 꿈을 향해 누구보다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이 정말 내가 바라던 모습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여러 부딪힘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잊혀진 '나의 꿈'의 시작이었던 '교실' 공간을 작품에 가져옴으로써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꿈을 꾸었던 공간과 그때의 그 시간을 회상을 통해 내면의 모습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던, 간절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는 미시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나의 작품에서 백색은 곧 회상의 수단이다. 어떠한 고정관념 없이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만의 추억으로 가득 채워보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원활한 소통을 위해 풍금의 소리와 오브제들로 공간이 채워진다. 또한, 교실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모습'과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시사하고 있다.

낙서, 풍경, 책상배치, 영상 이 4가지 요소들을 통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해 깨닫고 느낄 수 있다. 점점 꿈을 잃어가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유년시절의 교실이라는 공간은 나의 모습을 비

추는 '거울'이라고 정의를 내려본다. 더 나아가 거시적으로 이런 우리가 만들어진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에 대하여 시사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했던 것은 아닌지, 여전히 우리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에 무감각해지고 무뎠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되짚어 보려 한다.

나의 이번 교실공간 작업은 보이지 않는 꿈을 좇던 그때를 기억 속의 공간에서 다시 상기시켜보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살아져서 사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선명한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란다.

1) 화이트 큐브

- 공간구성의 색채적 특성 및 조형적 특성

미술가가 되기 위해 꿈을 꾸던 교실을 하얀 도화지 위에 스케치를 선으로 백색의 공간을 채우는 이유는 바로, 모든 오브젝트들은 점, 선, 면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즉 곧 그들의 시초는 점, 선, 면이라는 것이다.

이 소재(오브제)들이 모여 공간을 형성하고, 그 공간안에 마지막 소재(관객)이 하나의 점,선,면으로 구성되어진다.

이 요소들은 '처음에서 시작된 교실'의 주제를 담은 나의 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색채적 특성으로 백색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에는 무엇이 있을까? 깨끗함, 순수함, 무지, 시작의 상태 등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색에 대한 생각이 위와 같을 것이고, 이 의미를 그대로 나의 전시에 가져오는 것이다. 백색은 무언가가 칠해지기 전의 단계이며, 무언가가 채워질 가능성을 가진 색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색은 아무 선입관

없이 나의 내면을 돌아보기에 가장 적합한 색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내가 말하는 백색은 나의 어린 시절 꿈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색이라고 칭하도록 하겠다. 나의 이번 전시에서 백색이 지닌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회상’이다.

하얗게 색이 비워진 공간 안에서 보는 이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으며 내면의 본성을 돌이켜보고 본인만의 기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말이다.

즉,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공간을 나만의 기억과 추억, 그리고 내면의 본성으로 가득 채워보는 것이다.

2) 작품 공간 스토리텔링

작품 공간을 교실로 설정한 궁극적인 이유는 나의 첫 번째 전시이기 때문이다. 처음인 만큼 첫 번째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첫 번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첫 전시인 만큼 나의 ‘처음’을 그려 내보고 싶었다. ‘나’ 처음은 언제였을까. 나의 꿈의 시작점이자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처음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해보는 것이다. 누구나 그 시절,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무한한 기대와 설렘을 품고 지낸다. 그때의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려 내면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고 다 함께 참여하는 전시공간에서 서로 내면의 가치관으로 인한 관계의 거리를 좁혀볼 수 있고 진정으로 작품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교실’이라는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객과 교실 사이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 함께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사소하고 조그마한 것 일지라도 그 작은 것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깃들여 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들에 주목해보자.

3) 관객과 작품의 관계 형성

ㄱ. 관객-소품 간의 관계

교실에는 없는 게 없을 만큼 수많은 소품으로 채워진다. 내 작품에서도 교실이라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소품들을 주로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접하지 못한 물건들이라 관객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회상하는 데 있어서 더욱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양한 소품을 통해서 관객과 관계를 맺게 되는 몇 가지들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 교탁종

탁상용 종은 선생님 책상이나 교탁 위에 늘 올려져 있던 것 중 잊지 못할 소품이다. 이 ‘종’ 하나로 무수히 많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쪽지시험이 끝날 때, 수업이 시작할 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항상 등장하는 소품이다. 나의 경우 항상 이 ‘탁상용 종’을 사용하는 선생님이 부러웠고 이 종이 정말 갖고 싶었다. 이같이 관객들은 각자만의 이야기로 이 물건과의 관계를 형성시키게 될 것이다.

- 학급 게시판

학교를 떠난 후 쉽게 볼 수 없었던 학급 게시판에는 1년 동안의 교실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학기 초 학급 게시판을 예쁘게 꾸미고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친구들의 모습, 친구들의 작품들, 학교 소식, 수업시간표 등등 아마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스쳐 지나가는 여러 기억 중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썼던 편지들,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과 풍선들, 한 학년을 마칠 때쯤 이별을 아쉬워하며 롤링페이퍼를 작성하고 학급 게시판에 붙이던 그때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 화분

가로형 화분은 우리의 하루하루 설레게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누구나 한 번쯤은 기다란 화분에 친구들과 함께 씨앗을 심고 팻말에 나만의 이름을 적고 옆 친구의 새싹과 비교하면서 울고 웃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를 것이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 사소하지만, 그 당시 매일매일 얼마나 자랐을지 기대하고 이로 인해 설레던 나를 떠올려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그 어느 작품보다 이런 소소한 화분 하나만으로도 관객과 감성적인 교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낙서

낙서는...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교실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도구일 것이다. 낙서를 통해 아이들은 제도적이었던 구조의 학교에서 낙서를 통해 이야기 하곤 했다. 그래서 제 작품에서의 낙서는 작가,작품.관객의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이번 작품전시는 전시오픈전 수업이 많은 학생들을 동원되어 다함께 옛 추억을 떠올리며 낙서 작업을 자유롭게 하게끔 유도하였다.

실제로 저는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그 학생들을 공공미술의 한 현장인 저의 전시장에 참여하게끔 한것이다.

그렇게 시작되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혼자 또는 그룹이 지어져 낙서를 하는 광경이 시작된것이다.

또한 전시 오픈이 된 첫날부터 관객들도 책상위에 놓여진 각종 펜으로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학창시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낙서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추억을 회상하는 형태로 낙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것을 볼수 있었다.

이것이 곧 추억,향수 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구나 라는... 변화된 작업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ㄴ. 관객-관객 간의 관계

공간 이외에 다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전시회에서는 관객과 관객 사이에서의 교류와 관계 형성이 충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관객들은 같은 작품을 감상하지만, 각각 다른 느낌을 받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관객들은 서로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 생각에서 그쳐 버린다. 하지만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는 이러한 아쉬움과 관객들 간의 관계성을 확장 시켜 볼 수 있다. 공간 자체가 작품인 곳에서 관객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그들의 사적인 추억들과 느낌들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객과 관객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결국 이는 작품과 관객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ㄷ. 관객-작가 간의 관계

관객과 작품의 관계는 결국 관객과 작가의 관계로 이어진다. 얼마나 작품을 잘 해석하고 작가의 의도와 뜻을 이해했는지, 서로 얼마나 원활한 소통을 했는지가 전시의 관건이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으로 성공한 전시’는 금전적 수익도, 관람객들의 수도 아닌, 관객들이 작가의 뜻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작가의 의도가 관객들에게 잘 도달했는지에 대한 관객과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4) 작품발표후의 결과(체험내용 중심)

교실이라는 전시에서... 체험은 교실안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많은 소통과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작가와 관객, 관객과 작품, 관객과 소품의 관계 등등... 그리고 각종 오브제들...이번 교실공간 안에서의 많은 관계와 더불어 중요한 몇몇 체험들에 대해 나열해보도록 한다.

교실공간에서 이루어 지는 체험들이 앞에서 나열한 많은 관계들의 총체적인 역할을 하며 이번 전시의 마지막 작품의 기록인 것이다.

체험 1. 소리(풍금)

인간이 갖고있는 감각중 청각을 건드리며 청각적 교실 체험을 유도하고 싶었다. 추억의 교실 공간에서 들리는 추억의 노래 연주들...

추억의 노래들을 들으며 관객들은 기본적으로 따라부르거나, 약간의 흥얼거리는 모습을 볼수있었고, 또 누군가는 어떤 노래가 나오자 과거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였다. 풍금에서 들려오는 청각적 요소는 관객들의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불러오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

체험 2. 도시락

미각적 요소를 건드린 것이다. 도시락의 모습은 작가의 학창시절 80년대 큰 타겟으로 설정하였다. 도시락은 양은 도시락으로 하고 그 안에 밥과 반찬의 모습도 그때 그대로이다. 이것또한 관람객들의 추억, 기억, 향수를 건드리거 위함이다.

체험 2의 도시락 부분에서 보여진 색다른 상황은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이야기 하는 관객이 전체의 50%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누구에게나 학창시절 교실에서의 도시락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체험 3. 고등학생 6명의 퍼포먼스 배우들

실제 고등학생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관객들 사이사이에 배치하였다. 관람객들이 체험을 하는것에... 공간과 인간 그리고 현장감에 대한 체험을 한층 높이기 위함이다. 관람객들은 초반에는 교복을 입은 퍼포먼스 배우들

과 거리감을 느끼더니... 약 15분정도 지난후 소통이 시작되기 시작되었다.
관객들은 자신 본인들의 추억을 퍼포먼스 배우들에게 이야기 하는 현상을 보이기도하고, 요즘 학교는 어떠냐는 이런저런걸 물어보며 예전 자신이 다니던 때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친구들 또는 몰랐던 관객들도 서로서로 공감대를 갖고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3. 작품분석

【작품 1】



【작품 1】 교실 책상들의 배치 구조 1



【작품 1-1】 교실 책상들의 배치 구조 2

【작품 1】

제작년도 : 2019년

작품크기 : 8900*9200*2900(mm)

작품재료 : 오브제(책상,걸상,교탁,풍금,전등,실사PRINT), 아크릴, 에나멜,
수성도료

제작방법

1. 전체적인 색채는 화이트톤을 기본으로 한 공간을 형성한다.
2. 각종 오브제(책상,걸상,교탁,풍금,전등,실사 PRINT)등을 전체 화이트 아크릴 및 수성도료를 이용해 채색작업을 한다.
3. 갤러리공간의 4개의 벽면에 교실에서 느낄 수 있는 기억을 되집을 수 있는 벽면 실사 드로잉을 검정색 아크릴로 드로잉 한다.
4. 공간과 드로잉(점,선,면) 그리고 각종 오브제를 본 전시 전체 구성에 맞게 배치한다.
5. 마지막 오브제인 퍼포먼서 배우들을 배치하고 전시의 흐름을 연출한다.
6. 청각적 요소를 위한 풍금 연주자의 곡을 선정하여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작품설명

위의 사진 【작품 1】 , 【작품 2】 에서 책상들이 반듯하게 놓여 있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구조가 반복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세상을 다채로운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지나치며 살아가고 있다. 결국, 제한적인 견해를 갖고 살아가는 사회를 시사해봄과 동시에 조금 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작품 2】



【작품 2】 풍금의 사용 1



【작품 2-1】 풍금의 사용 2

【작품 2】

제작년도 : 2019년

작품크기 : 600*1800*1100(mm)

작품재료 : 오브제(풍금), 아크릴, 에나멜, 수성도료

제작방법

1. 전체적인 색채는 화이트톤으로 초벌을 한다.
2. 기본 화이트 톤으로 칠한 풍금을 전체적으로 샌딩 후 다시 화이트 수성도료를 이용해 다시(3회) 채색한다.
3. 아크릴 및 에나멜 검정색을 이용하여 점,선,면을 활용한 드로잉을 한 후 손이 많이 가는 부분에는 투명 바니쉬로 코팅을 한다.

작품설명

풍금을 기억하는가? 수많은 악기 중 유년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악기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의 연주에 따라 너도나도 다 함께 동요를 부르던 시절이 떠올릴 수 있다. 우리의 회상은 시각적인 것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백색의 교실에서 풍금의 연주가 흘러나온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번 전시에서 풍금과 그 연주를 더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청각의 요소를 더하여 관객과 더욱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실의 모습보다 풍금의 연주가 더욱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 연주가 우리를 그 시절 그때로 데려다줄 것이며, 관객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무 소리 없는 정적인 교실의 모습보다 경쾌한 연주가 흘러나오는 교실이 더욱 생동감 있고 리얼하게 다가올 것이다.

【작품 3】



【작품 3】 도시락의 사용 1



【작품 3-1】 도시락의 사용 2

【작품 3】

제작년도 : 2019년

작품크기 : 200*1400*400(mm)

작품재료 : 오브제(양은도시락), 각종 음식물

제작방법

1. 기성품 추억의 양은도시락을 구입
2. 백반,햄,멸치볶음,계란후라이,김 등을 50인분씩 2SET정도의 양을 만든다.
3. 각각 만든 밥과 반찬을 옛날도시락을 연상 할 수 있는 구성 및 배치로 양은도시락에 담는다.
4. 전시당일 오프닝 퍼포먼스중 한가지였던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생수와 함께 책상에 앉은 관람객에게 생수와 함께 지급한다.

별첨 : 본 전시의 핵심이었던 오프닝 퍼포먼스 시간에는 점심시간의 연상이 증폭 될 수 있도록 도시락 식사와 함께 풍금연주를 통해 작가, 관객, 공간이 함께 하나가 되어 작품의 완성도를 더하는 것이었다.

작품설명

【작품 3】 도시락의 사용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중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설레는 시간은 언제였을까 돌이켜보면 점심시간이 아닐까 싶다. 서로 준비해온 도시락을 보며 왈카지겔 떠드는 자유시간인 점심시간 동안 많은 추억을 도시락을 통해 관객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전시에서 도시락은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매체가 된다. 즉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다.

【작품 4】



【작품 4】 공간전시의 퍼포먼스 1



【작품 4-1】 공간전시의 퍼포먼스 2

【작품 4】

제작년도 : 2019년

작품크기 : 8900*9200*2900(mm)

작품재료 : 오브제(책상,걸상,교탁,풍금,전등,실사PRINT), 아크릴, 에나멜,
수성도료, 작가, 관객, 사운드, 음식물

제작방법

1. 작품1에서 이야기한 전시공간 및 전시물품 세팅
2. 전시 작가, 관람객 사이의 관계형성, 관람객과 관람객 사이의 관계형성, 관람객과 전시공간의 관계형성, 전시공간안에 있는 것들의 수많은 오브제들간의 관계형성
3.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섯가지 감각(오감-시각,청각,미각,촉각,후각)을 이용한 관계형성 및 공감대 형성
4. 오프닝을 시작으로 한 퍼포먼스(학생) 배우들의 등장으로 관계형성을 더욱더 극대화 함

작품설명

퍼포먼스 학생(인물) 배우 6명의 등장

백색 교실공간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줄 학생을 직접적으로 전시에 투입하여 공간을 완성 시켜 줌으로써, 이러한 학생들의 모습이 관객들에게는 이 공간에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게 만드는 소통의 연결자 역할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꼭 한 명쯤 있을 법한 부류의 학생들로 구성된다.

【작품 4】 과 【작품 4-1】에서는 공간 자체가 작품인 본 전시에서 관람객들이 온몸으로 전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간이라는 조건을 전시 콘텐츠로 활용한 다 함께 전시에 참여하는 참여형 전시회 형태로서 그 어느 작품전시회에서보다 현장감과 생동감 그리고 무엇보다 작품과 관객과의 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작가가 의도 및 작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그들만의 사적인 추억과 기억들로 재해석해 공간을 가득 채워냈다. 본 전시의 마지막 작품은 관객이 참여하는 것이며, 동시에 관객이 작품 일부가 된다.

【작품 5】



【작품 5】 창문너머 보이는 풍경들

【작품 5】

제작년도 : 2019년

작품크기 : 8900*2900(mm)

작품재료 : 아크릴, 에나멜, 수성도료

제작방법

1. 갤러리 공간의 벽면을 화이트 수성도료로 초벌을 칠한다.
2. 검정색 아크릴 및 에나멜을 이용하여 교실의 벽면 드로잉을 한다.
3. 투명 바니쉬를 이용하여 묻어나지 않도록 보강작업을 한다.
4. 전시가 시작되기전부터 전시가 끝나는 그날까지 관람객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사연이 있는 이야기를 벽면에 낙서를 통해 표현한다.

작품설명

벽면을 통해서는 ‘아이들의 눈에 창문 밖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라는, 교실이라는 공간이 전부였던 그 시절의 우리는 바깥 풍경을 어떤 시선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을까. 어른들의 세계를 그저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바라보았을 그때,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되새겨보고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학생들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다.

시간이 지난후에도 관람객들은 본 전시장에서 그때로 돌아가 그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

결국, 작품에서 창문 밖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그런 우리가 살아왔던 그 리고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과거,현재,미래 모습을 대신한다.

【작품 6】



【작품 6】 School / 평면드로잉 1



【작품 6-1】 School / 평면드로잉 2



【작품 6-2】 School / 평면드로잉 3

【작품 6】

제작년도 : 2019년

작품크기 : 490*600 / 1100*4500 / 230*800 / 400*250 / 700*300 /
500*200 / 450*300 / 1150*250(mm) - 총 8장의 작품

작품재료 : 아크릴, 에나멜, 수성도료, 실크스크린, 드로잉

제작방법

1. 총 8장의 평면작품을 제작하기로 함
2. 8장의 평면작품을 각 사이즈에 맞추어 MDF를 제단한 후 4면의 모서리를 45도로 도메작업을 한 후 샌딩을 한다.
3. 화이트 수성도료로 초벌 채색작업을 한 후 두 번째 화이트 수성도료에 화이트 펄 가루를 섞어 다시 도포작업을 한다.
4. 최종 밑작업후 실크스크린 작업을 통해 PRINT PRESS작업을 하고 그 위에 다시 검정 아크릴로 드로잉 작업을 더한다.

작품설명

【작품 6】, 【작품 6-1】, 【작품 6-2】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평면 작품은 총 8개의 각기 다른 사이즈에 서로다른 공간안에 8개의 사춘기 시절을 연상할 수 있는 평면 작업이 전시되어진다. 공간전시와 함께 전시된 이 드로잉 아트는 교실에서 추억들이 아닌 배제되었던 이들(나)의 모습을 담아내었다. 그 모습은 내가 유년시절 겪었던 사춘기 시절을 연상하기도 하며, 보는이로 하여금 학창시절 힘들고 지칠 때 누구나 느꼈던 감정을 인체 드로잉의 포즈, 시점 등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다.

교실이라는 공간이 아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의 모습과 빚대어 보

면, 크고 묵직한 소리뿐만 아니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 작은 소리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그 작은 목소리에 귀기우리면서 나를 포함한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꿈을 갖기도 한다.

【작품 7】



【작품 7】 책상의 낙서

【작품 7】

제작년도 : 2019년

작품크기 : 650*450*730(mm)

작품재료 : 아크릴, 에나멜, 수성도료, 바니쉬

제작방법

1. 오브제(책상) 전체를 샌딩작업을 한다.
2. 샌딩작업을 한 후에 수성도료로 전체 화이트 채색을 한다.
3. 화이트 수성도료로 초벌 채색작업을 한 후 검정색 아크릴 및 에나멜로 라인드로잉을 한다..
4. 전체 화이트 도장 및 드로잉 작업 후 마지막 바니쉬 작업으로 코팅을 한다.

작품설명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 한들, 진정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다.

책상이나 벽 등 곳곳에 그려진 낙서들, 우리가 보면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게 될 ‘낙서’들이 아이들에게는 낙서가 아닌 소중한 기록이자 일기장일 것이다. 우리가 보는 그 낙서들이야말로 정말 그들의 진심을,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이다. 그 내용 속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칠 그런 조그마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보자. 그 이야기 안에는 분명히 무시하지 못할 경고와 교훈들이 담겨 있을 지도 모른다.

【작품 8】



【작품 8】 교실 바닥표현

【작품 8】

제작년도 : 2019년

작품크기 : 8900*9200(mm)

작품재료 : 일러스트 작업, 실사출력

제작방법

1. 실제 OMR카드와 동일하게 일러스트(벡터)로 하나하나 그린다.
2. 바닥 전체면적에 맞추어 재단선을 맞추어 작업하여 출력한다.
3. 바닥 전체 폭에 맞추어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실사출력 및 부착을 한다.

작품설명

우리가 학창시절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즉 아마 학생지도부 선생님 다음으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시험지와 OMR카드이다. 우리가 그 시절에 겪을 수 있던 최고의 고민이자 인생 최대의 고난이었던 그 카드를 패턴화하여 바닥으로 표현하였다.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했던 존재이지만 지금은 우리의 발아래에 있다. 이것은 곧 그때는 그것이 역경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상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것을 깨우치기 바란다.

III. 결 론

전시콘텐츠를 연구의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화이트큐브의 활용과 공간전시의 의미 그리고 관람자 ‘교실 공간 체험’ 전시를 살펴보았다.

회화작품, 영상 등이 중심이 된 기존 전시회 모습보다는 공간 자체를 작품으로 설정한 본인의 작품을 통해 작가는 그 공간 ‘교실’의 새로운 의미(재해석 또는 시도)를 창출하고, 관람객은 공간을 미술작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을 도출해내었다.

교실에서 이루어진 공간체험의 다양한 시도들은 공공공간에서 관람객들의 사적체험이 더해지면서 교육적 전시공간을 넘어 감상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의 새로운 확장을 발견했다. 교실(공간전시)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저장된 ‘공간체험’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가깝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의 가능성을 지닌 곳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교실이라는 공간전시는 기존에 관람객들에게 수동적 미적 체험만을 요구해왔던 기존 전시와는 다르게, 관객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면서 공간-작품-관람객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쌍방향 문화 공간의 새로운 공간과 함께 긍정적인 효과를 형성될 수 있는 곳임을 발견했다. 교실에서 관람객은 전시 기획자나 작가가 완성한 예술작품들을 감상하는 주체가 되어 공간 자체를 감상하고 온전히 작품과 하나 됨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실을 통해 잠시 잊었던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연결시키는 시공간의 미적 체험을 시도한 것이다.

이 시도를 기반으로 작품이 진열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전시공간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확장 시키는 보다 많은 사례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그 안에서 관객-공간-작가의 상호관계를 고찰해보는 것을 제안해본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권미원 (2013), '장소 특징적 미술', 현실문화
- 데이비드 딘/전승보 옮김(1998), "미술관 전시 이론에서 실천까지" 서울, 학고재.
- 맬컴 마일스/ 박삼철 역 (2000), 『미술, 공간, 도시』, 학고재.
- 전해숙 (2000), 『리처드 세라의 공공조각과 장소-특수성』, 『현대미술사연구』, 제10집.
- 토마스 크로우 외/ 이영철 역 (1997), 『현대미술과 모더니즘론』, 시각과 언어.
- 페트리샤 필립스/ 이영옥, 김인규 역 (2010), 『공공성의 구축, 새 장르 공공미술: 지형그리기』 문화과학사.
- The artist magazine (2019), '만인을 위한 아름답고 착한 미술, 공공미술 & 장소 특정적 미술'.

<신문 기사>

- 문화일보 (2019, 11), '〈공간혁신, 학교가 변하면 미래가 변한다〉 교실서 실컷 뒹굴고 땅따먹기도 "토요일에도 등교해 놀고 싶어요".'
- 오하니 (2017), 「독일의 작은 도시 뮌스터, 10년에 한번 세상의 중심이 되다」,
-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 : 독일의 작은 도시인 뮌스터(Münster)에서 10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공공미술 행사로, 1977년부터 시작되어 10년 주기로 도시 전역에서 펼쳐는 조각프로젝트이다. 2017년에는 6월 10일에서 10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한국경제 글방

<인터넷 사이트>

장소 특정성 예술, <https://analbreaker.tistory.com/15> [analbreaker]

<국외 문헌>

Boym, Svetlana. (2001). *The Future of Nostalgia*. Basic Books

Cross, Gary S. (2015). *Consumed nostalgia : memory in the age of fast capitalism*.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Draaisma, Douwe. (2013). *The Nostalgia Factory : Memory, Time and Ageing*. Yale University Press.

Hans Ulrich Obrist (2014), 「The Kitchen Show」, the PARIS REVIEW, December 18.

Josep Montaner & Jorsep Oliveras (1986), *The Museum of the Last Generation*, Academy Editions.

Michael Belcher (1991), *Exhibitions in Museums*,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Stephen. S, (Ed) (1986), *Building the New Museum*, The Architectural League of New York.

Richard Schechner (1994), "Re-Introducing Environmental Theater"

Environmental Theater, New York: Applause, pp.x-xxxii.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directed Space ON THE BASIS OF MY WORK-

han kyu kim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Now, the exhibition space for many artists has become very diverse and free.

As the place blends into its work, it is now possible to convey the topic the writer wants to represent and the point he wants to convey to those who see it more effectively.

To deliver more efficiently to the audience, many artists have begun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white cube, and at the same time are beginning to make more new attempts. In addition, the audience now listens to the pieces and joins them as part of them.

This kind of community-participating art ha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viewers to understand the work more actively and actively.

And the art that characterizes the place also creates interaction through a bond or similar memory and experience based on the work and audience, and the author, based on any specific subject.

The process of creating a consensus with the audience by reminding them of the various memories and experiences that have settled inside the audience through the work has also become an important part of modern

artists' work.

Most of the time, we forget our cherished memories and dreams when we were young in our daily lives.

Why don't you think of the memories and memories that once occupied most of your life together through artwork in some particular space?

Perhaps this kind of opportunity for appreciation of works of art is not only a little more friendly for the audience, but it is certainly a pleasant stimulus in a free and hectic daily lif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space with infinite potential to contain the various voices of the audience, starting with his own work, "White School," which is based on the space production based on "space" among the exhibition contents being addressed.

In the main topic, we will look at the social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space exhibitions and choose the exhibition contents as "space" as the story of his childhood as the background of the work begins.

based on what we considered, we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place.

And the conclusion is to summarize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work and the audience in the basic exhibition space that he has set himself up as a "classroom" and suggest future direction.